

‘미술 마라톤’ 반환점 도는 선수 위해… 나도 같이 달릴 겁니다

2015 아시아프 ‘히든 아티스트’
심사위원 맡은 하종현 화백

“나도 그림 안 팔리던 ‘숨은 작가’
단색화로 여든에 뒤늦은 전성기
한우물 파온 30·40대 작가들의
젊은 작품, 성실하게 심사할 것”

“외로운 젊은 예술가의 길에 동행자가
돼 주겠습니다. 어두운 작업실에서 잠시
밝은 데 나와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시험
하는 무대에 한번 서보세요.”

올해 아시아프 특별전으로 30~40대 작
가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‘Hidden Artists
100(숨겨진 100인의 아티스트를 찾아
라!)’의 심사위원을 맡은 하종현(80). 화
백이 후배 작가들을 향해 두 팔을 활짝 벌
렸다. 하 화백은 요즘 미술계 최고 화두인
단색화 열풍의 중심에서 있다. 여든에 맞
은 전성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. 지난
주엔 베네치아까지 갔다. 베네치아 비엔
날레 병행전시로 열린 ‘단색화 특별전’
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.

13일 경기도 일산 작업실에서 만난 한
화백은 아직 채 여독이 가시지 않은 상태
였다. 피곤에 전 그를 흔쾌히 인터뷰로 이
끈 단어, ‘30~40대 젊은 작가’였다.

“예술이라는 마라톤에서 출발, 중반,
도착, 어느 하나 안 중요한 지점이 없어요.



박상훈 기자

“이게 내 40년 화가 인생 콜라주예요. 젊은 날 그림 접었다면 이런 작품 없었겠지요.” 하종현 화백이 일산 작업실에 걸린 2008년작 ‘접합 08-101’ 앞에 섰다. 1970~2000년대 그림과 철조망을 붙여 만든 작품. 화백이 가리키고 있는 틀째 거꾸로 붙은 그림 뒷면엔 ‘74년’ 이란 연도가 선명하다.

그중에서도 30~40대 ‘중반부’는 중요해
요. 결혼하고 애 낳고 교육시키다 보면 생
활에 얹매일 수밖에 없고, 작품 할 수가
없거든. 상대를 의식해서 그림 그리게 되
고, 결국 그림에 자기는 없어지고….”

어느새 그는 30~40대 ‘젊은 하종현’을
추억하고 있었다. 1970년대 신촌 창천아파
트 9평 집에 네 식구가 살았다. 연탄불 때
는 아파트였는데 아침이면 애들 안 죽었나
흔들어 깨우는 게 일이었다. “애들 연탄가
스 안 마셨나 확인하고, 동치미 국물 먹이고,
교수(홍익대 미대)라 고생 없이 산 줄

아는데 늘 어려웠어요. 봉급으로 돈 안 되
는 작품 했으니. 그때 나온 게 단색화야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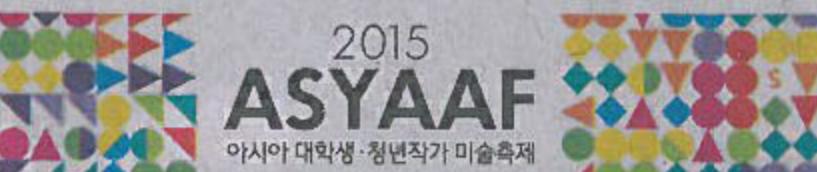
작업실 한편엔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린
70년대 단색화 대표작 ‘접합’ 시리즈가 걸
려 있다. 미군이 군량미를 담았던 마대 자
루를 잘라 뒷면에 물감을 발라 밀어 넣은
배압법(背押法)으로 만든 작품이다.

“나야말로 그땐 ‘숨겨진 작가(히든 아
티스트)’ 였지. 숨고 싶어서 ‘숨은 게 아니
라 세상이 안 두드려줬으니(웃음). 그래
도 그림으로 나를 불사르겠다는 각오로
작업했지. 그러니 말년에 이런 결과도 있

는 거고.” 2008년작 ‘접합 08-101’ 앞에
섰다. 1970~2000년대 그림을 뜯어낸 뒤
철조망과 콜라주해서 만든 작품이다.
“화가 인생 40년의 콜라주인 거지요.”

그는 “40년 전 어려운 시절의 나 같은 젊
은 작가들이 아직 많다”고 했다. “갤러리
에서도 ‘(예술가로서) 도망가지 않을 나
이’를 찾다 보니 중견 작가 이상을 선호해
요. 30~40대 작가들의 설 자리가 적을 수
밖에. 그러나 ‘예술은 인생을 걸고 하는 도
박’. 절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.”

선배 화가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꺼냈다.



숨겨진 ‘이중섭’을 찾습니다

‘2015 아시아프(아시아 대학생·청년작
가 미술축제)’에서 30~40대 작가들을 대
상으로 한 특별전 ‘Hidden Artists 100’이
열린다. 하종현 화백, 오광수·송미숙 미술
평론가, 김노암 세종문화회관 전문위원, 박
명자 갤러리현대 회장 등 전문가의 심사를
거쳐 작가 100명이 선정된다. 선정 작가는
특별전 구역에서 전시·판매하게 된다.

▲기간 : 2015년 7월 7~19일(1부)

7월 21일~8월 2일(2부)

▲장소 : 문화역서울 284(옛 서울역사)

접수는 18일까지 hiddenartists.chosun.com

“어두운 작업실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는
없어요. 가끔 밝은 데(전시장) 나와 내 그
림이 어디까지 왔는지 냉정히 평가받아 볼
필요도 있습니다.” 그가 당부했다. “공모전
만 찾아서 다니는 사람은 사절입니다. 옆길
안 보고 한 우물 파는 작가, 진지하게 작업
하겠다는 의지 있는 작가들이 왔으면 합니
다.” 그리고 약속했다. “심사위원들이 공정
히 심사하고, 좋은 작품들 성실히 뽑을 테
니 믿어주세요.” 아주 오래간만에 심사위
원으로 젊은 작가를 만나러 간다는 노장의
묵직한 일성(一聲)이다. 김미리 기자